

“평안한 삶 감사...기부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자”

본보 2024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기유식 ‘기유식수학학원’ 원장

학원 개원 이후 2008년 첫 기부...취약계층 아동 7명 후원
누적 1억여원 돌파...학생 대상 학업·철학 교육 등 진행



수학 교과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기 원장은 이듬해인 2008년 첫 기부를 시작

“앞으로도 기부를 통해 평안한 제 삶에 대한 감사를 사회에 전하고 싶습니다.”
광주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가 16년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소재한 기유식수학학원 기유식(48·사진) 원장. 19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유식수학학원을 개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로나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기 원장은 현재 7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매월 총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 금액이 1억여원을 훌쩍 넘어섰다. 기 원장은 “부모님께서 ‘돈을 잘 벌면 사람들을 도우라’고 늘 말씀하셔서 학원 수익이 안정되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됐다”면서 “처음 기부 당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소년소녀가장을 추천받아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기 원장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돕고 싶은 마음에서 ‘용돈’ 개념으로 현재까지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고 씩씩러운 듯 덧붙혔다. 기 원장은 주로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와도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기부 방식은 단순하면서 확고하다. 매월 기부금을 전달하되 아이들과 대면하지는 않는다. 이는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고맙다는 감정보다는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기 원장은 “저의 평안한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부’라는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며 “기부는 저에게 일상으로 단순히 물질적 후원이 아닌 자라는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7년째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업은 물론 인생에 대한 교육도 틈틈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 원장은 “인생에서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부도 목표를 세우면 짧은 시간 내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짧은 돈으로 살 수 있도록 선배로써, 교육자로써 아이들이 이끄고 있다”고 환히 미소를 지었다. /주성학기자

5년 전 요양병원 환자 낙상 사망사고 내달 1심 결론

檢, 당직 의사 등 의료진 4명 모두 금고 1년 구형

〈속보〉지난 2019년 광주 한 재활요양병원에서 낙상해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책임은 묻는 재판의 1심(본보 2월 15일 6면 보도)이 사고 5년 만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피고인 4명 모두 환자의 사망에 대해 ‘불가항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모두 유죄로 판단, 각각 금고 1년씩 구형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기소된 광주 한 재활병원의 전직 의료진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당직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1~4시 사이 입원 환자 A(70대·여)씨가 침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동안 잠을 자거나 순찰을 돌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파킨슨병 환자였던 A씨의 침상에 낙상 주의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였으나,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서 근무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사망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침대에서 떨어진 A씨는 사고 당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휴식을 취한 뒤 야간 근무에 다시 투입된 간호조무사

에 의해 발견됐다. 그와 교대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간호사는 당직 의사에게 상황을 다시 알렸다.

병원 밖에 있었던 당직 의사는 이내 용을 듣고서 복귀했다. 당시 요양보호사는 취침 중이라 A씨의 낙상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A씨의 사망과 자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관련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상 사고 자체가 막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강조하며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진다. /안재영기자



명절 뒤 수거한 스티로폼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오전 광주 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직원들이 명절 기간 분리수거한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전남 환경 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영산강유역환경청, 17개소 적발...4곳 형사 입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지역 환경 법령 위반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환경청·지자체 합동 기획점검반을 운영,

총 17개소의 위반행위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사항이 중대한 4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음주운전 공무원·해경 ‘징계 부당’ 소송서 패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과 해양경찰관이 각각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9일 보성군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7월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보성군은 A씨를 사무원에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A씨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재판부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1월 무안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옆 변압기, 가로등, 펜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안재영기자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검사 부임

신임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임승철(49·31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2일자로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임 신임 차장검사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경선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또 신봉수 광주고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부임 4개월여 만이다. /안재영기자

광주경찰, 안도걸 국회의원 소환 조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

사를 받았다. 19일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안 의원을 조사했다. 안 의원은 4·10 총선과 관련,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수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안재영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